

KIPF ISSUE PAPER No.103

통권  
제103호

2020. 8. 31

[www.kipf.re.kr](http://www.kipf.re.kr)

# 조세재정 브리프

##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시사점

안중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 [jsan@kipf.re.kr](mailto:jsan@kipf.re.kr)

- 1 들어가는 글
  - 2 분석결과
  - 3 정책시사점
- 참고문헌





## 요약

- ▶ 본 연구는 최근의 소득세 수입의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 2011~2017년의 세수입 증가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국민계정 소득의 증가로, 근로소득세는 세수입 증가분의 42.1%, 종합소득세는 45.3%가 국민계정 소득 증가로 설명됨
  - 세수입 증가에서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구간별 소득비중 변화, 즉 소득분포 변화가 33.1%를 설명하였고, 종합소득세는 신고율 변화가 41.5%를 설명하였음
  - 주로 제도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는 근로소득세의 10.8%, 종합 소득세의 10.9%를 설명하였음
- ▶ 향후 세수 전망에 대해 본 연구는 과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소득세 수입이 증가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함
  -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공제제도와 세율 구간을 변함없이 더 오래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임
  - 앞으로도 계속 신고율이 상승하도록 유도해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 축소는 불가피함
  - 정부가 소득세 수입을 빠르게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이전과는 달리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안종석,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 1 들어가는 글

- ▶ 본 연구는 최근의 소득세 수입의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소득세 수입의 변동요인은 제도 변화에 따른 ① 실효세율 변화 ② 실제 소득의 변화 ③ 행정의 개선에 따른 신고율 (=신고소득/실제소득)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음
- ▶ 소득세 수입 증가 요인을 자세하게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특히 최근의 급격한 소득세 수입 증대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음
  - 세율체계가 누진적으로 되어 있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다양하여 제도가 매우 복잡하며,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 통계분석을 통해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였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려움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소득 구간별 코호트의 세수입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을 파악함

- ▶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소득세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본 연구가 소득세 수입 증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함

KIPF ISSUE PAPER

## 2 분석결과

### ① 분석 방법과 자료

- ▶ 본 연구는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되어 있는 소득수준별로 집계된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세수입 증가 요인을 분석함
  - 분석대상 기간은 소득세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2011~2017년임
- ▶ 요인 분석 방법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각각에 대해 소득세 수입 증가분을 각 요인별 증가분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함
  - 먼저 세수입을 신고소득 총액의 증가에 의한 부분과 평균 실효세율 상승에 의한 부분으로 구분하고, 다음 단계로 신고소득 증가와 평균 실효세율 상승 요인을 분석하였음
  - 신고소득 증가는 국민계정(SNA)에 나타난 소득 증가분과 SNA 소득 증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 즉 신고율(신고소득/SNA 소득) 증가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하였음
  - 평균 실효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납세자를 11개의 코호트로 나누고 코호트별 실효세율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평균 실효세율 변화와 코호트별 소득 비중 변화에 따른 평균 실효세율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② 분석결과

#### 가. 근로소득세

- ▶ 2011~2017년 사이에 근로소득세 수입은 95.1% 증가하였는데, 그중 53.4%p는 신고소득 요인에 의한 것이고, 41.7%p는 실효세율 요인에 의한 것임(〈표 1〉 참조)
  - 이 두 가지 요인이 세수 증대에 미친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현하면 각각 56.1%와 43.9%임
  - 연도별 변화를 보면, 세수입 증가율이 9.2(2016년)~14(2014년)%인데, 그중 신고소득 증가에 따른 세수입 증가분이 6.0(2016년)~7.7(2012년)%p임
  - 실효세율 변화에 의한 증가분은 2014년에 7.6%p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2017년 6.1%p이며, 다른 해에는 3.0~5.0%p였음



▶ 한 단계 더 분해해 보면, 신고소득 변화는 거의 대부분 국민계정 소득 증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백분율 기준으로 신고소득 기여분이 2011~2017년 세수입 증가의 56.1%를 설명하는데, 그중 42.1%p가 SNA 소득 증가에 의한 것이고, 14.1%p가 신고율 증가에 의한 것임
- 세수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신고소득 증가에 따른 세수입 증가분 53.4% 중 40.0%p가 SNA 소득 증가에 의한 것이고, 13.4%p가 신고율 변화에 의한 것임
- 연도별 변화를 보면, SNA 소득 증가로 인하여 세수입이 전년도 세수입 대비 4.2~5.7% 증가하였으며, 신고율 개선으로 인한 세수입 증가는 대체로 전년도 세수입의 2% 내외 또는 그 이하임

〈표 1〉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요인 분해

(단위: %, %p)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1~2017
(증가율 기준)							
세수 증가율	12.2	11.6	14.0	11.2	9.2	12.6	95.1
신고소득 요인	7.7	7.0	6.3	6.3	6.0	6.4	53.4
SNA 소득	5.0	5.2	4.2	5.2	5.7	4.5	40.0
신고율	2.6	1.8	2.1	1.2	0.3	1.9	13.4
실효세율 요인	4.5	4.6	7.6	4.9	3.2	6.1	41.7
구간별 실효세율	1.6	1.3	2.6	0.9	0.3	0.8	10.2
구간별 소득 비중	2.9	3.3	5.0	4.0	2.9	5.4	31.5
(백분율 기준)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고소득 요인	63.1	60.2	45.5	56.3	65.0	51.2	56.1
SNA 소득	41.3	44.5	30.2	45.9	62.2	36.1	42.1
신고율	21.7	15.8	15.3	10.4	2.7	15.1	14.1
실효세율 요인	36.9	39.8	54.5	43.7	35.0	48.8	43.9
구간별 실효세율	13.0	11.1	18.5	8.0	3.5	6.2	10.8
구간별 소득 비중	23.9	28.7	36.0	35.6	31.5	42.6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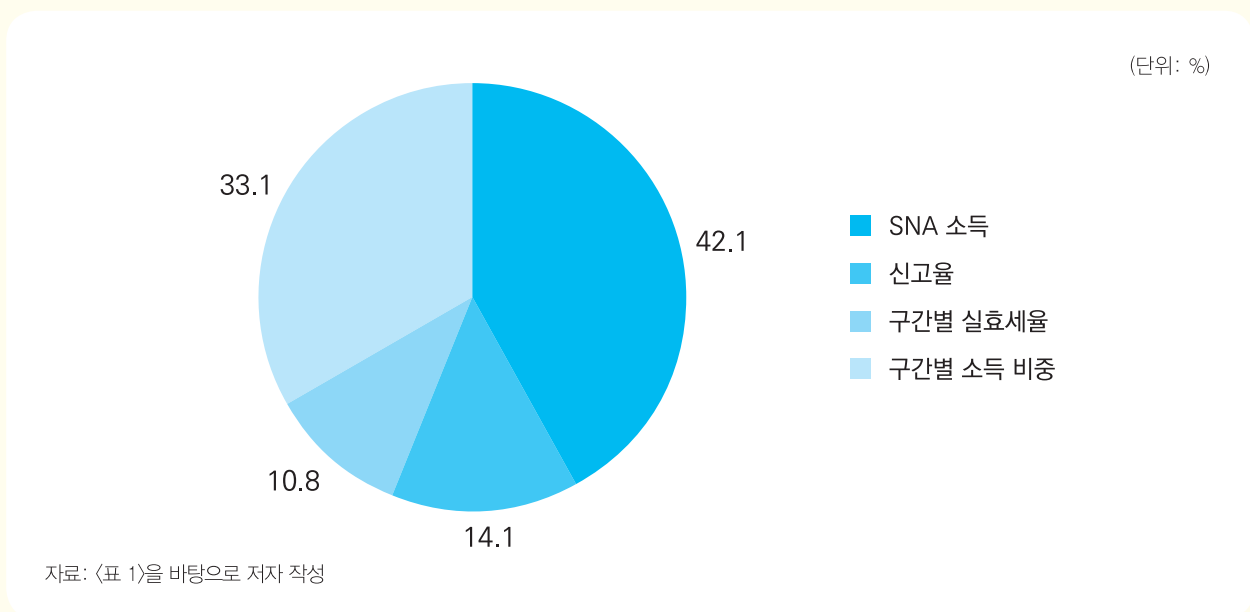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실효세율 변화 요인의 영향을 한 번 더 분해해 보면, 2011~2017년에 실효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입 증가가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 95.1% 중 41.7%p를 설명하는데, 그중 10.2%p는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에 의한 것이고 31.5%p는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에 의한 것임

- 백분율로 표현하면 세수입 증가분의 10.8%가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에 의해 설명되고, 33.1%가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에 의한 것임
- 연도별 세수입 증가율로 보면,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에 의한 세수입 증가율이 대체로 1%p 내외가 되는 것으로 평가됨
- 예외적으로 2014년에는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입 변화분이 전년도 세수입의 2.6%로 다른 해보다 상당히 큰데, 이는 이 해에 발생한 세율구간의 조정, 근로소득 공제제도 개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등 세제 개편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 다른 해에는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를 통해 세수입 변화를 유도할 정도의 큰 개편이 없었음
  - 2014년과 다른 해의 구간별 실효세율 격차 요인 차이는 2014년의 세제 개편이 세수입을 전년 세수입의 1.5% 정도 증가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는 점을 시사함
- ▶ 실효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입 증가분 중 4분의 3 정도는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에 의해 설명됨
- 2011~2017년의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에 따른 세수입 증대분이 이 기간 중 세수입 증가분의 33.1%임
  - 연도별로 보면, 2014년과 2017년의 경우,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에 따른 세수입 증가분이 전년도 세수입의 5.0%와 5.4%였으며, 2015년에는 4.0%, 그 외 연도에는 3.0% 수준이었음
  - 구간별 소득 비중의 변화에 따른 세수입 증대는 소득세제의 누진적 세부담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
    - 소득세제가 변화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가 성장하고 납세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평균 실효세율이 상승하여 세수입이 증가함
  - 이러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세수입 증대분이 2011~2017년 세수입 증대분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음
    - 연도별로 보면, 매년 전년도 세수입의 3% 정도가 이 요인으로 인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 [그림 1]에서는 2011~2017년의 세수입 증가 요인을 SNA 소득 증가, 신고율 상승,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로 구분하여 백분율로 표현하였음
- ▶ [그림 1]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SNA 소득 증가가 세수입 증가분의 42.1%를 차지하고,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가 그 다음으로 33.1%를 설명한다는 점임
- 이 두 가지 요인은 모두 소득 증가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 두 요인이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분의 75.2%를 설명함

[그림 1] 근로소득세 증가요인 분해(2011~2017년)





- SNA 소득 증가분은 실효세율이 일정할 때 소득 총액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입 증가분을 설명하며,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는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개별 납세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증가하는 세수입 증가분을 설명함
- 정부가 물가상승, 소득의 증가를 고려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 규모·한도와 세율구간을 조정하면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에 따른 세수입 증가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공제한도나 세율구간, 공제액 등을 매년 조정하지 않고, 때에 따라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부정기적으로 개편함
- 2011~2017년 기간에는 최고소득구간의 세부담 증대를 위한 세율구간 조정이 있었을 뿐, 물가상승 및 소득 증가를 고려한 공제제도 및 세율구간의 조정이 없어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에 따른 세수입 증대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와 신고율 변화는 소득 변화 외에 소득세제 및 행정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임

- 2011~2017년 세수입 증가분 중 신고율 변화가 설명하는 부분이 14.1%이고,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가 설명하는 부분이 10.8%임
- 신고율은 신고소득의 SNA 소득 대비 비중으로 세무행정 측면에서의 개선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근로소득세는 특성상 다른 소득에 비해 신고율이 높으므로 신고율의 개선 폭이 크지는 않음
- 그렇지만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과세정보시스템의 개선, 사업소득의 신고율 제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발전, 그 외 각종 제도 정비가 근로소득세 신고율 제고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는 소득세제의 변화와 구간 내 소득분포의 변화에 의해 발생함

- 2014년에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의 영향이 가장 큰데, 이는 그 해에 있었던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에 따른 것임
- 한편 눈에 띄는 세제 개편이 없었던 해에도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가 어느 정도 세수입 증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주로 구간 내 소득분포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구간 내 납세자의 소득분포가 소득이 높은 쪽으로 변화되면, 구간 평균 실효세율이 상승하기 때문임
- <표 1>에 나타난 연도별 변화를 보면, 대체로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 중 3분의 1 정도는 구간 내 소득분포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나. 종합소득세

- ▶ 종합소득세는 2011~2017년 기간 중 세수입이 95.7% 증가하였으며, 그중 83.1%p가 신고소득 증가에 의한 것이고, 실효세율 증가에 의한 부분은 12.6%p에 불과함(<표 2> 참조)
  -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각각 86.9%와 13.1%인데, 근로소득세의 경우 두 가지 요인이 각각 56.1%와 43.9%를 설명하였던 것과 대조됨

▶ 한 단계 더 분해해 보면, 신고소득 요인의 세수입 증가분 83.1%p 중 43.4%p는 SNA 소득 증가에 의한 것이며, 39.7%p는 신고율 상승에 의한 것임

- 백분율로 보면 각각 세수입 증가분의 45.3%와 41.5%임
- 신고율 상승에 의한 세수입 증가는 SNA 소득 증가로 설명되지 않은 신고소득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세수입 증가를 의미하는데, 세무행정의 발전이 신고율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판단됨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세행정의 개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업소득 과표 양성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신고율 상승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표 2〉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요인 분해

(단위: %, %p)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1~2017
(증가율 기준)							
세수 증가율	11.4	9.7	12.1	13.3	8.9	15.7	95.7
신고소득 요인	13.0	6.7	7.9	12.0	8.8	13.7	83.1
SNA 소득	7.2	6.5	1.4	5.8	3.2	9.1	43.4
신고율	5.8	0.2	6.5	6.2	5.6	4.5	39.7
실효세율 요인	-1.6	3.0	4.2	1.3	0.1	2.0	12.6
구간별 실효세율	1.7	1.5	3.2	0.3	1.0	-0.2	10.4
구간별 소득 비중	-3.3	1.5	1.0	1.0	-0.9	2.3	2.1
(백분율 기준)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고소득 요인	113.8	69.1	65.1	90.1	98.8	87.0	86.9
SNA 소득	63.2	67.1	11.4	43.3	36.1	58.2	45.3
신고율	50.6	1.9	53.7	46.8	62.7	28.8	41.5
실효세율 요인	-13.8	30.9	34.9	9.9	1.2	13.0	13.1
구간별 실효세율	15.0	15.6	26.3	2.3	11.2	-1.5	10.9
구간별 소득 비중	-28.8	15.3	8.6	7.6	-10.0	14.4	2.2

자료: 저자 작성

▶ 실효세율 요인을 한 단계 더 분해해 보면, 실효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입 증대분 12.6%p 중, 10.4%p는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에 의한 것이고 2.1%p는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에 의한 것임

-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각각 세수입 증가분의 10.9%와 2.2%임
-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에 의한 세수입 증대 정도는 근로소득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음
  - 일부 소득공제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같은 과세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근로소득세의 경우 총 세수입 변화의 3분의 1 정도를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가 설명하는 데 비해,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 부분이 세수입 증가분의 2.2%에 불과함
- 이러한 차이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성격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은 주로 종업원의 급여로 구성되는데,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도 증가하지만 성장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이 기존 인력의 급여 증가분에 반영되어 개별 납세자의 과세소득도 증가하므로,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평균 실효세율이 상승하게 됨
-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개별 납세자의 소득이 연도별로 변화가 크며 납세자 수도 변화가 커서,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구간별 소득 비중의 변화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변화를 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와는 달리 연도별로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 폭이 큼

- 전년 대비 세수입 증가율은 최저 8.9%(2014년), 최고 15.7%(2017년)이며, 신고소득 증가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전년도 세수입의 6.7(2013년)~13.7(2017년)%임
- 실효세율 요인은 최저 -1.6%p(2012년), 최고 4.2%p(2014년)임
- 2014년의 실효세율 변화 요인을 한 단계 더 분해해 보면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이 전년도 세수입의 3.2%이며,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전년도 세수입의 1% 수준임
- 신고소득 요인을 한 단계 더 분해해 보면, 2014년의 경우 SNA 소득 증가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이 전년도 세수입의 1.4%였으며, 2016년에는 3.2%, 그 외 연도에는 6% 이상임
- 신고율 상승에 따른 세수입 증가분의 전년도 세수입 대비 비율은 2013년에 0.2%로 가장 낮았으며, 그 외 연도에는 5% 수준 또는 그 이상이었음

▶ [그림 2]에서는 2011~2017년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분 중 SNA 소득 증가, 신고율 상승,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 SNA 소득 증가가 세수입 증가의 45.3%를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는 신고율 상승이 세수입 증가의 41.5%를 설명함
- 이 두 가지 요인이 전체의 86.9%를 설명하며,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에 의한 부분이 10.9%,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에 의한 부분이 2.2%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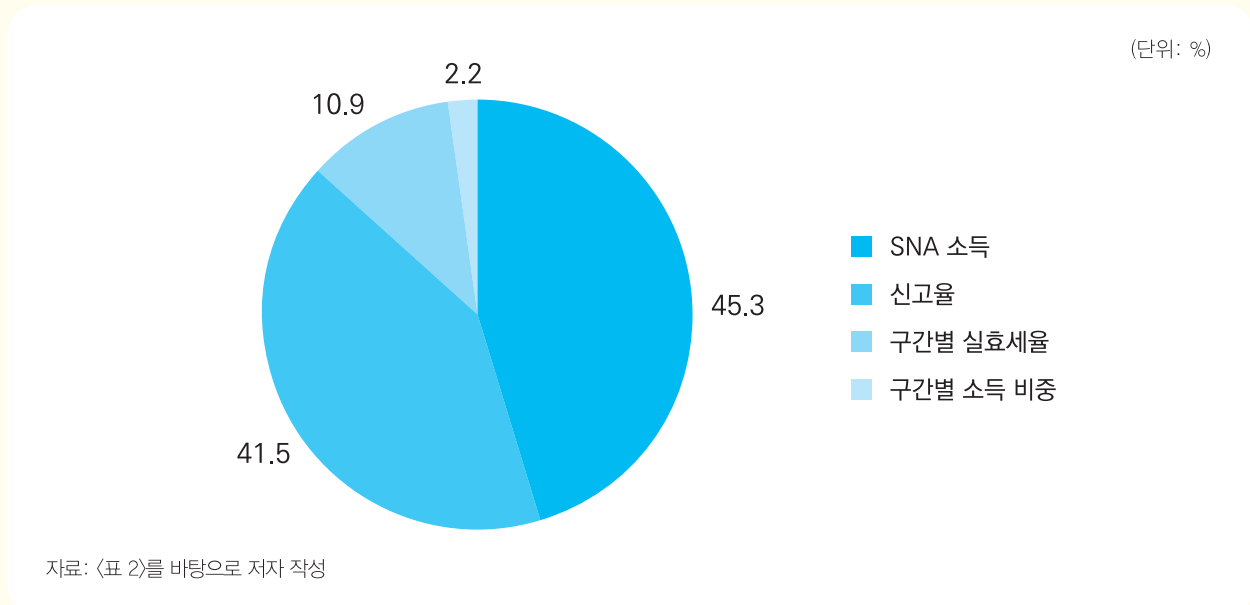
▶ SNA 소득 증가가 세수입 증가의 가장 큰 부분을 설명한다는 점은 근로소득세와 유사함

-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SNA 소득 증가가 설명하는 부분이 42.1%로서, 종합소득세에 비해 수치가 약간 낮지만 큰 차이는 아님
-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가 설명하는 부분도 종합소득세 10.9%, 근로소득세 10.8%로 유사함
  - 이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에 같은 과세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임

▶ 근로소득세의 경우 구간별 소득 비중의 변화가 2011~2017년 세수입의 33.1%를 설명하고 신고율 상승이 세수입 증가분의 14.1%를 설명하는 데 비해, 종합소득세는 전자가 2.2%에 불과하고 후자가 41.5%로 나타나, SNA 소득 증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보임

- 근로소득의 경우 신고율이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세수입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음
  - 한편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많아져서 평균 실효세율이 상승하고 세수입 증가 효과가 커짐

[그림 2] 종합소득세 증가요인 분해(2011~2017년)



-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세수입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한편 소득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에 따른 세수입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음

KIPF ISSUE PAPER

### 3 정책시사점

- ▶ 소득세 수입 증대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변화임
  - 납세자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소득 증가율보다 세부담 증가율이 더 높아짐
  -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분 중 3분의 1 정도가 이 요인에 따른 것인데, 이 효과는 소득세의 누진적 과세체계에 따른 것임
- ▶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증가하고 세부담이 증가하면 실질 세후소득은 감소함
  -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구간, 공제금액 등에 대해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국가도 있으며, 매년 또는 2~3년을 주기로 세율구간, 공제액 등을 조정하기도 함



-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수년에 한 번씩 공제제도나 과세구간을 조정하여 세부담의 급격한 증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최근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조정을 하지 않았음
  -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11~2017년에는 그러한 조정이 없었음
- ▶ 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방식, 즉 물가변동과 소득의 증가를 고려하여 세율구간과 공제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간 변화 없이 유지하는 방식이 제도 개편에 따른 정치적 부담 없이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한편 정치적 부담 없이 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납세자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 다른 관점에서 보면, 소득세의 누진적 과세체계가 자동적인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 경기 상승기에 세부담을 축소하고 하락기에 세부담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보다는 변화 없이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음
  - 그러나 자동안정화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경기가 급격한 변동을 하는 시기로서, 경기의 급격한 변동 기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경기 과열이 우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 세율구간 공제금액 등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자동안정화 기능의 긍정적 효과보다 재정의 비효율성, 책임성 약화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율 제고가 세수입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사업소득의 과표 양성화율이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신고율 상승의 세수 증대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신고율은 2013, 2014, 2015년에 매년 5%p 이상씩 상승하였는데, 2016년에 4.99%p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며, 2017년에는 2.88%p 상승하는 데 그침
- ▶ 종합소득세의 신고율 제고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격차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정부는 근로소득세가 종합소득세에 비해 과표현실화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에 차등을 두는 정책을 유지하여 왔음
  - 2017년의 경우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큰 구간은 소득 4천만~6천만원 구간으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격차가 3.59%p임
    - 이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4.39%이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근로소득세 납세자보다 82% 정도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됨
- ▶ 실효세율 격차가 크면 성실한 신고자와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한 자의 세부담 격차가 더 커지므로 사업소득자의 성실한 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됨

-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의 신고율이 상당히 개선되어, 신고율 제고가 2011~2017년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분의 41.5%를 설명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정책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줌
  -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실효세율 격차를 재평가하고 개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마지막으로 향후 세수 전망에 대해 본 연구는 과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소득세 수입이 증가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2011~2017년에 소득세 수입의 빠른 증가를 유도한 요인은 소득의 증가, 세율구간과 공제금액 등의 장기간 미조정,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율 제고로 정리할 수 있음
  - 그런데 향후에는 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 않으며, 공제제도와 세율구간을 변함없이 더 오래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신고율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의 축소는 불가피함
  - 향후 정부가 소득세 수입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고자 할 때는 세수 증대를 명시적인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각 연도.  
 박명호, 「부가가치세 세부담 결정요인 분석」, 『재정포럼』, 제235호, 2016. 1. pp. 6~22.  
 박형수 · 박명호 · 김학수 · 정재호, 『중장기 세수 변동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안종석,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안종석 · 오종현,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오종현, 「최근 소득세수 변동에 대한 요인분해」, 『재정포럼』, 제260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2. pp. 6~33.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15.

## <웹 사이트>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검색일자: 2019. 5. 27.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국민계정, 주요경제지표, 검색일자: 2019. 5. 15.

